지속가능한 조경설계에 있어서 생태미학적 접근

민병욱

(주) 동심원 조경

An Ecological Aesthetic in Sustainable Landscape Design

Min, Byoung-Wook

Dongsimwon Landscape Design

ABSTRACT

Since the late 20th century, sustainability is one of the most pressing concerns for the security and well-being of our society when we are witnessing the rapid change in urban landscape patterns. Responding to this issue, the discipline of environmental designs including landscape architecture has also attempted to realize this concept in various w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introducing and redefining the meaning of ecological aesthetics as an alternative “sustainable” design theory. This paper theoretically discusses about the role of aesthetics in landscape desig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scape and aesthetic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cological aesthetics. Based o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the study attempts to re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ecological aesthetics: an emphasis on cognitive process in landscape appreciation, environmentalism, unrestricted from style, and normative aesthetics.

Having defined the characteristics, this study also finds several design subjects to adapt the concept of ecological aesthetics to actual design practice. Founded on the big idea “make nature visible”, the defined subjects are ecological functions, temporality of landscape, and history of landscape, security, and accessibility. Also, this study stresses the importance on the creativity of the design(er) in order to effectively represent these subjects to the public.

Key Words: Landscape Aesthetics, Ecological Aesthetics, Sustainable Design Theory, Subjects of Sustainable Landscape Design

국문초록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현재 인류의 생존과 웰빙에 관련된 가장 큰 화두일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조경을 포함한 환경설계 분야에서도 이 개념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급변하는 도시경관의 변화와 조경설계의 방법과 태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에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추구하기 위한 대안적인 설계이론으로 생태미학이라는 분야를 소개하고 재정 의하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생태미학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경설계에 있어서 미학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경관과 미학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광범위한 문헌조사와 분석을 통해 생태미학의 특징을 정의하였는데, 첫 번째는 경관체험에 있

Corresponding author: Byoung-Wook Min, Dongsimwon Landscape Design, Seoul 133-824, Korea, Tel.: +82-2-544-5674, E-mail: bw.min75@gmail.com

어서 인지적 과정을 강조, 두 번째는 환경주의자적인 가치관, 세 번째는 기존의 스타일로부터 해방, 네 번째로 설계에 있어서 규범적인 성격이 분석되었다.

이렇게 규명된 생태미학의 특징을 바탕으로 조경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생태미학적 설계주제를 요약 및 논증하였다. 주 설계 개념인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자연”을 바탕으로 설계가 표현해야 할 다섯 가지 주제는 생태적 기능, 경관의 일시성, 역사성, 안전성, 접근성 등이며,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설계의 과제는 위 주제들을 예술적이며 친근하게 표현해야 하는 설계(가)의 창의성이라고 판단되며 차후 연구에서 심도 깊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경관미학, 생태미학, 지속가능한 설계이론, 지속가능한 조경 설계의 주제

I. 서론

이 연구는 조경설계분야에서 ‘생태미학’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설계 이론으로써 어떤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도시 환경의 질이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쉽게 인식하게 되는 요즘 시대에, 경관의 미(美)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도시 환경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요소임에는 틀림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도시 환경을 창조하고 관리하는 조경 및 도시설계의 실천과정에서 이 두 가치들이 서로 상충 및 대립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특히 조경설계에서 생태적 프로세스를 정리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집단과, 경관의 미적 표현을 설계의 중심 가치로 두는 집단이 팽팽하게 서로의 가치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Mozingo, 1997). 이 대립되는 두 가치를 연결하려는 시도로 생태미학(ecological aesthetics)이라는 분야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기존 연구들에서 생태미학은 설계분야보다는 주로 경관 생태학이나 산림 관리, 순수 미학분야에서 많이 언급되어 왔으며, 설계 방법론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았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조경설계 분야에 있어서 미학과 생태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찰함과 동시에 대안적인 가치로 알려져 있는 설계 이론으로서, 생태미학적 접근의 발생 배경과 특징을 문헌연구를 통해서 종합하고 정리하여, 환경 및 경관 미학분야에서 주목 받아온 생태미학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조경 설계 및 계획에 어떠한 실천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지 알아본다.

II. 본론

1. 조경 설계에 있어서 미학의 역할

전통적으로 기능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의해서 결정이 만들어지는 조경 설계 및 계획 분야에서는 ‘미학(美學, Aesthetics)’에 관한 담론은 그리 주목 받지 못한 분야일 것이다. 게다가, 조경 설계에서 ‘미학연구’라는 학문적인 분야의 역사가 그리 길

지 않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그리고 국내에서 미학(美學)의 개념은 ‘예술, 문화, 자연에 대한 비평’이라고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많지만, 이러한 이해만 바탕으로 미학을 설계나 계획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이론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골치 아픈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미학을 작품에 대한 비평의 차원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자칫 너무 개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이해되어 실천적인 응용이나 이용자의 실제적인 경험에 대한 고려가 소홀하기 쉽기 때문이다(Sepänmaa, 1986).

게다가 “미학적”이라는 형용어는 조경 설계분야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이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애매모호한 경향을 띄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미학, 디자인 등은 사물의 겉모습을 표현하는 형용어로 서로 혼용되어 쓰여진다. 예를 들어,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전문가들조차 만약 좀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계작품을 보면, “저것은 미학적으로는 흥미롭다”라든지, 더 나아가 비전문가의 경우에는 “저건 단순히 디자인만 예쁘다”라는 식의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미학’이나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일반적인 어감이 그 대상의 깊은 의미를 표현하기보다는 겉모습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진다(Koh, 1988).

하지만, 조경 설계에 있어서 설계가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또한 설계 프로젝트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경관미학이라는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주제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개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Nohl, 2001). 더욱이, 역사적으로 볼 때, 원래 미학(aesthetics)이란 감각적인 지각, 감각적인 경험 또는 감정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aisthesis’에서 기원하며,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미학(aesthetics)을 “감각적인 지각의 상태”를 다루는 과학(science), 혹은 자연 및 예술에 있어서 “취향 또는 지각”을 다루는 철학(philosophy) 및 이론(theory)이라고 정의한다. 즉, 미학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예술에 대한 이론적인 비평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미적인 체험에서 이뤄지는 지각적인 현상과 반응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학은 어떤 특정 예술 작품이 흥미로운지 아닌지

에 대한 코멘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핀란드의 미학자 세판마(Sepänmaa, 1986)는 “이런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미학이라는 분야가 특정한 연구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이 될 수 있으며, 그 이론적인 틀(theoretical framework)이 만들어짐으로써 다른 실질적인 연구에 적용되거나 학문적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존 예술분야에서 다루는 전통적인 미학에서는 개체의 독립적인 미(美)가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경관이라는 복합적이며 맥락에 의해 의미의 변동이 큰 대상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Bourassa, 1988, 1990). 특히, 경관미학(Landscape Aesthetics)의 분야에서는 경관(landscape)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생태적 복합체”라는 특성 때문에, 더욱 통합적이며 분석적인 접근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조경이 “특정 문화의 바탕에서 자연을 표현하고, 그 자연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일구어내는 분야”(Comer, 1999)라고 정의한다면, 조경 설계 분야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단순히 자연을 재현하거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사람들과 자연의 사이에 일어나는 인식적 상호관계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긍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미학은 경관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실증적 연구 결과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한다. 즉, 설계가는 미학적 연구를 통해 사람들의 경관에 대한 인식의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설득력 있는 설계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동시대에 조경이 다뤄야 하는 이슈를 보다 효과적으로 경관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다.

2. 지속가능한 경관과 미학

자연과 (인간)문화를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은 서구의 문명에서 가장 뿌리 깊게 이어진 관념 중 하나일 것이다(Glacken, 1967). 이는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자연(physis)을 인간에게서 비롯된다는 테크네(techné)와 분리하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 개념은 자연을 “객관적 지시대상”이라고 규정하는 17세기의 과학적 합리주의에 의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강조된다. 이러한 자연의 “객관성(objectivity)”의 개념은 이원론적인 사상에 기반하여 인간의 문화를 “주관성(subjectivity)”라는 작은 범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Toulmin, 1992).

하지만, 근래에는 문화의 산물로서 자연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서 널리 알려진 사고이다. 이는 칸트의 철학이나 초기 이상주의(idealism)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자연과 문화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인간 문화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또는 “자연의 사회적 구성 (social construction of nature)”라고 불리는 이 사상은 자연 자체의 본질에 대한 존재론적인 주장이라기보다, 우리가 자연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인식론적 주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cf. Hacking, 1999; Proctor, 1998). 예를 들자면, 각각의 다른 문화권에서 의미하는 자연의 형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사람들에게는 그들 국토의 대부분이 인간의 토목공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땅임에도 불구하고, 초록의 폴더랜드(네덜란드의 간척지)나 조림된 숲을 자연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미국 애리조나의 사람들은 초록의 초목이 드문 서부 사막지역의 황량한 경관을 “아름다운” 자연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그들이 속해 있는 자연 및 인문 환경에 따라 그들이 이해하는 자연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경설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식되는 자연의 이미지를 땅이라는 캔버스 위에 투영시키는 작업이 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패턴은 조경 설계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하지만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그 “자연”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그 의미 또는 특질은 시대 및 그 사회의 맥락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경 설계에서는 동시대의 일반적인 자연의 모습을 재현 또는 구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단순히 환경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의 양과 깊이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경관을 보고 알고자 하는 태도 또한 계속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구에서 200년 이상 동안 지배해온 픽처리스크(the picturesque) 스타일¹⁾이 많은 조경 설계 작업에 이론적 바탕을 마련해 주었으며, 서구에서는 아직까지 픽처리스크로 대표되는 목가적인 이미지의 경관이 대중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경관으로 여겨지며(Wohlwill, 1983),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하지만, 오늘날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가치를 지닌 자연의 의미는 기존의 미학적 잣대와 거기에서 규정하는 스타일로 이해하고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20여년 동안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다양한 도시 경관의 타이포로지 (예를 들어,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사이트(post-industrial site)로 알려진 난지도 공원, 선유도 공원 및 기타 여러 도시 재생경관 등)의 사회/문화적 생태적으로 복잡한 의미는 경관의 표면적인 스타일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의 미학으로 그것들을 이해하는 개념적인 틀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배정환, 2006).

이러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사이트로 대표되는 도시 경관은 설계가의 의도와는 별개로 흔히 “생태공원”이나 “지속가능한 경관(sustainable landscape)”이라는 타이틀이 부여되곤 하는데, 크란츠와 볼란드(Cranz and Boland, 2004)는 광범위한 문헌조사와 연구 결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공원의 세가지 원칙

그림 1. 기능하는 경관(하늘공원의 풍력발전기)

자료: 필자 촬영, 2010

을 추출해냈다. 그들은 그 특징으로 “자족능력이 있는 공원”, “공원 외부의 더 큰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원”, “공원에서 새로운 미학적 형태가 생성되는 공원”이라는 원칙을 분류하였다.

여기서 새로운 미학이란 공원의 형태와 도시와의 관계, 그리고 그 형태가 더욱더 생태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갈수록 이 변화에 따라 “진화론적인(evolutionary) 입장의 미학”이 생성되며, 거기에 따라 설계(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조경가 테이어(1989)는 지속가능한 경관은 다원적(pluralistic)이며, 특정 문화와 생태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의 눈에 띄는 스타일만 포함하지 않고,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속적인 경관의 미(美)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Thayer, 1989). 예를 들어, 집단적으로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그 문화적·지역적 맥락에 따라 자연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광의적인 차원에서 실제 우리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즉,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라 경관이 작동하는 기능과 의미를 알게 되면, 그 경관의 가치를 다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미학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과 생태(Ecology)의 간극과 생태미학

예술과 과학은 둘 다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이겠지만²⁾,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많은 부분이 개인적인 경관에 대한 체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태적인 지식이 환경에 대한 지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일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지식들이 반드시 우리의 미적 경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Nassauer, 1997). 즉, 몇몇의 경우에는 경관의 미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가 비례적인 상관관계에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미적으로 매력 있는 경관이 항상

생태적인 건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어 활발한 생태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있는 생태 습지나 초지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오히려 지저분한 경관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물학적 다양성과 기능 등 전체 환경의 가치에 그 경관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구성요소들을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많은 연구에서 조경 내에 내재되어 있는 미학과 생태의 간극을 이해하고 좁히려는 목적으로 경관 미학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경관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위 “생태미학”이라는 분야가 이러한 시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 분야이다. 생태미학은 기본적으로 경관에는 생태적인 건강성, 다양성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연계되어 있는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미학인데, “생태적으로 중요한 경관을 보호하는 것에 관련된 문제들을 미학적으로 다루고”, “시각적인 아름다움(scenic beauty)의 전통적 관념에 대한 공격”의 방법을 가져다 주었다(Gobster, 2008; Parsons and Daniel, 2002). 그리고 생태미학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생태와 미학적 체험 사이에는 상호적인 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곧 생태적으로 건강한 기능을 가진 경관으로부터 사람들이 경관 체험의 즐거움(快, pleasure)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국 인간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이다. 서식지 이론(habitat theory)에서는 생태적 가치에 대한 관심 또한 그 사람이 느끼는 경관에 대한 지각한 미적 가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어떤 경관을 생태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할 때 일반 대중의 공감 또는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 사람들이 경관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에 대한 패턴을 이해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한 이해가 이뤄지고 난 후에야 조경 설계가나 계획가는 경관의 생태적 가치와 미적 가치의 차이점을 이룰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Zube *et al.*, 1982; Kaplan and Kaplan, 1989; Nassauer, 1995a, 1997; Gobster *et al.*, 2007).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전통적인 미학은 이런 환경의 생태적인 건강과 사람들의 미적 체험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피상적이고 공허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생태미학은 과학과 예술, 자연과 문화, 객관과 주관의 간극을 메우려는 미학적인 노력이라고 일환일 것이다. 즉, 생태미학은 “과연 어떠한 경우에 생태적 가치와 미적 가치가 충돌하는가?” 그리고, 그 두 가치의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떠한 중재 방법이 있는가?”를 조경 분야에서 모색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은 연구 분야이다. 이에 대해 갑스터와 그의 동료들은 “설계(design)”와 “교육(education)”을 두 가지 대표적인 조정 수단으로 결론지었는데, 설계를 통한 중재의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혹은 생태적인 경관에서 물리적인 조작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경관 자체의 미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교

육을 통한 중재는 사람들에게 경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그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혹은 전통적인 미학의 관점에서 아름답다고 볼 수 없는 생태적인 경관을 봤을 때 지각적인 미적반응보다는 인지를 하여 그 경관의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적 체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Gobster *et al.*, 2007). 설거나 교육 모두 다 조경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겠지만, 특히 “어떤 형식의 설계가 그 경관의 생태적 가치를 사람들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또는 “생태적 가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일반 사람들이 쉽게 감응할 수 있는 미적 가치를 높이는 설계의 언어는 무엇인가?”라는 설계의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는 생태미학이라는 분야의 특징이 분석 및 요약된다.

4. 생태미학의 특징

愛卽爲眞知 知卽爲眞看 知卽爲眞愛 愛卽爲眞看 看卽蓄之而非徒蓄也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니 그 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저암 유한준 (1732~1811)

1) 인지적 과정(Cognitive Process)으로의 경관의 체험

생태미학의 최초 아이디어는 아무래도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의 저작 *Sand County Almanac*(1949)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레오폴드는 “생태미학”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저술에 대한 모음집인 ‘*The River of the Mother of God*’(Flader and Callicott, 1991)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미학에 대조해 생태미학의 특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레오폴드의 혁명적인 경관 미학에서는 시각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감각기관도 자연 내의 대상물에 대한 세련된 취향에 의해 훈련될 수 있으며, 미학적인 경험은 감각적이면서도 지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시대의 건축인들의 믿음과 같이 레오폴드에게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명제가 그의 미학에 대한 가치관에서 의미하는 바가 컸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말로는, 그에게 우발적인 색깔이나 형태는 미적인 매력과 아무 상관이 없었으며, 경관의 시각적이거나 풍경화적인 퀄리티도 전혀 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그는 진화하고 있는 자연의 유산과 생태적인 프로세스의 완결성에서 그 경관의 미학적 매력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pp. 9-10).

즉, 레오폴드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지각하는 경관의 표면에서 보여지는 전통적인 미학의 원칙³⁾(Clark, 1949)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생태적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일어나는 미학적인 경험이 중요하며, 이러한 경험이 사람들에게 그 경관에 대한 애착을 더욱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경관에 대한 미학적 경험은 지각적(知覺的)인 반응뿐만이 아니라, 보다 인지적(認知的)인 이해가 일어날 때 그 경험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앞에서 든 예와 같이, 호트러진 잡초와 쓰러져서 썩어가고 있는 나무들이 널려 있는 저습지 주변의 경관은 비록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각적인 가치가 없을 수 있지만, 다양한 동물과 미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며,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크게는 전체 생태환경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때에 만약 이러한 경관의 구체적인 생태적 가치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 경관이 난잡하고 보기애 불쾌한 모습일 수 있으나, 그것의 생태적 과정과 기능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흥미로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주하는 환경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가치” 있는 경관이라고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것은 마치 소비자들이 농산품 시장에서 일반적인 농법으로 재배한 반듯하고 예쁘게 생긴 사과보다, 유기농법으로 길러낸 벌레 먹은 자국이 있는 못생긴 사과에 더 가치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게다가, 독일의 철학자 바움가르텐(Baumgarten, 1714~1763)은 미학적인 지각은 감각적인 인지 또는 지각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미학적 지각은 경관에서 정보, 지식, 이야기 등을 추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이며, 관찰자가 이러한 내용들을 추출, 이해하는 것에 더 많이 성공하면 할수록, 그 관찰자의 감성적 혹은 다른 구체적인 이익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Nohl, 2001). 테이어(Thayer, 1989)도 또한 생태적인 경관을 체험할 때에 있어서 그 경관에 대한 정보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그는 생태경관의 전체성⁴⁾(totality)을 기존의 전통적인 미학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으며, 특히 최근의 경관의 생태적 환경적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관에 대한 내용의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바람직한 경관의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환경주의(Environmentalism)

전통적인 미학과 생태미학 사이에는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겠지만, 환경주의의 성격이 아마도 생태미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 헤팅거(Hettinger, 2008)는 “환경의 파괴가 심각한 문제인 이유 중 하나는 실질적인 미적 가치가 파괴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환경보호에 있어서 미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만약 야생이나 농촌, 동네의 나무에 미적인 가치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은 심각하게 약해질 수 있다.

사실 환경주의와 경관미학의 관계는 18세기와 19세기에 형

성된 자연에 대한 미학, 특히 객관성(disinterestedness) 이론과 픽처리스크 스타일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유럽과 북미에서 “환경에 대한 감상과 관심”은 픽처리스크의 영향을 받은 여행(tourism)에 의해서 발전되어졌다. 하지만 근래 들어 미학과 환경주의 간의 관계는 이전보다 비례적인 상관관계에 있지 않으며(Carlson, 2010), 자연 경관 혹은 역사 경관의 보존 및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주의적인 아젠다를 수행함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기존의 전통 미학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문제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습지와 같은 경관을 보존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인 미학으로는 그들의 이념을 뒷받침하는 것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Rolston, 1988; Callicott, 1994), 특히 자연이나 경관을 체험하는 것은 다감각(multisensory)적이며 쌍방향적인 참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연에 대한 목가적인 접근(pictorial or scenic approach)은 자연을 2차원적인 풍경화를 나열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들었다(Carlson, 2010; Saito, 1998; Berleant, 1997).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생태미학은 전통적인 미학에 비해서 생태적 건강성에 대해 윤리의식과 환경적인 책임감을 그 개념의 가장 중심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스타일로부터 해방

생태미학은 스타일을 규정하는 전통적인 경관과는 달리, 모든 경관의 스타일을 수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고주석(Koh, 1988)은 생태미학의 진화론적인 설계접근은 “미학의 역동적인 뷰(dynamic view of aesthetics)”를 가능하게 하며, 실증 미학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형태(form)’를 배열(ordering)하는 기존 미학의 초점을 벗어나 프로세스를 조율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차원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라일(Lyle, 1994)와 테이어(Thayer, 1989)는 현대 문명의 테크놀로지 등을 숨기거나 위장할 필요가 없이 드러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많은 예술가와 조경가들이 경관의 프로세스를 드러내는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프로세스 위주의 사물은 종종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나사우어(1995a)는 지지분해 보이는 경관에 설계적으로 어떤 신호(cues)를 부여하여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설명했다. 예를 들자면, 습지의 생태공원이 좋은 사례일 것이다. 질퍽거리는 땅과 무수한 갈대숲만 있다면 사람들은 그 경관은 먼 거리에 있는 “보기만”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공적인 형태의 야생동물 관찰 데크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진입이 가능하며 관리가 되고 있는 장소”라는 신호를 주게 되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 장소가 자신들과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생태적인 경관이라고 항상 부정형의 흐트러진 스타일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형적인 스타일의 설계도 생태적 기능을 수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고정된 동선으로만 움직이고 활동하는 경우에는 정형적인 형태가 오히려 목가적인 모양의 영국 정원보다 동물의 서식처나 식물의 다양성에 더욱 기여할 수도 있다. 게다가, 야생 동물들은 공간의 형태보다 그 공간의 내용, 생태적 질에 의해 자신들의 보금 자리를 만들고 가꾸어 나간다. 즉, 구불구불한 형태의 수로와 뾰뾰한 갈대밭에 서식하는 야생 오리들이 있는 반면, 추수가 끝난 기하학적인 패턴의 넓게 열린 논밭에도 충분한 먹이와 사람들의 통제만 있으면 두루미가 모여들 수 있는 것이다. 즉, 생태적인 의미는 그 공간 내부의 프로세스와 질(質)이 결정하는 것이며, 스타일을 초월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4) 규범적인(Normative) 설계 이론으로써 생태미학

생태설계는 광의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우리 환경의 생태적 건강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측면이 생태설계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설계행위가 좀더 문화적 사회적으로 매력적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 고유의 설계언어로 대중에게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 미학은 특히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구체적인 이론적, 실증적 바탕을 제시해준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생태설계의 역할은 생태체계, 프로세스, 요소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지각하기 쉽게 드러내고 해석하여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경에 있어서 생태설계란 설계된 경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들이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각할 수 있게 하고, 더욱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한다.

데이빗 오어(David Orr)가 아마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태설계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한 사람일 것이다. 그는 그의 저서 *The Nature of Design*(2002)에서 “단순히 구태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이 되지 않으려면, 생태설계는 반드시 대중의 일상생활 구조에 내재될 수 있는 일종의 교육적인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태적인 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좀 더 환경친화적(greener)인 제품을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한다. 더불어 생태설계의 “목적은 생태적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대중이 이해하여 거기에 맞춰 그들의 생활패턴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젠스타인(Eisenstein, 2001)은 에코 레벌라토리 디자인(eco-revelatory design)의 개념을 요약하면서 생태적으로 설계된 도시의 경관은 환경 교육에 관한 노력들과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문화적 의미와 생태적 가치가 그 지역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에코 레벌라토리 디자인의 사례로는 우수를 수집 저장하는 정원과 습지, 자생수종,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이용한 구조물,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수순환, 수목의 생장과 부식 또는 바람의 패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조형적 접근을 한 경관 등을 포함한다.

갑스터(Gobster, 2008) 또한 생태미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설계행위로 숨겨진 생태적 프로세스를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경관 패턴의 표면으로 끌어 올릴 수 있으며, 자연의 필수적 기능과 프로세스를 우리의 관심 영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통하여 경관의 본질과 인간의 미학적 체험의 연결 고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설계에서 자연의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가르치고, 다시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생태 설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경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의미를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조경가의 역할은 그 경관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조정 및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설계를 통한 자연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조정은 단순히 경관의 시각적인 질을 높여서 사람들이 좀 더 높은 선호도를 가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경관에 내재된 이야기와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된 생태미학의 특성과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해 전통미학⁵⁾과 생태미학을 비교할 수 있다(표 1 참조).

5. 생태미학에 기반한 조경설계의 실천적 주제

설계는 문화적 작업이며, 문화로 인한 생산물이다. 설계는 자연에서 온 소재로, 주로 구성됨과 동시에 동시대의 사회적 담론의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생태설계는 단순히 생태적 테크놀

로지를 사용한 설계가 아니다. 경관의 문화적 가치가 경관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경관의 문화적(예술적) 매력이 사람들의 관심을 그 경관으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이 “보살피려는(care)” 마음과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때 궁극적으로 그 경관의 생존성, 즉 “문화적 지속가능성(cultural sustainability)”을 높일 수 있다(Nassauer, 1988; 1997). 하지만, 많은 생태 설계 프로젝트들은 미적인 매력이 부족하다고 비판을 받아왔다(Jencks, 1995). 이는 아마도 여태껏 생태설계가 생태적 테크놀로지로서만 지나치게 집중에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많은 생태 설계가가 “경관의 생태적 가치는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가치는 미적 경험을 초월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또는, 생태적 가치라는 것은 설계가들이 형태로 포장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Mozingo, 1997).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생태적 정보와 지식을 표현하고 중재하기 위한 설계적(미학적) 언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아마도 조경 설계가에게 가장 지속적으로 도전되는 과제일 것이다.

1)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자연(Make Nature Visible)”

생태미학적 가치를 고려할 때, 조경 설계의 가장 큰 화두는 설계를 통해서 “자연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사람들이 더욱 쉽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냐?”이다. 이는 많은 생태설계 이론가들을 통해서 경관의 “가시성(visibility)”이나 “식별가능성(observability)”의 개념으로 강조되었다(Hough, 2004; Mozingo, 1997; Van Der Ryn and Cowan, 1996; Thayer, 1989). 특히 반더린과 코완(Van Der Ryn and Cowan, 1996)은 “자연의 순환과 프로세스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작업은 만들어진 환경을 우리의 생활로 불러들여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눈에 보이는 자연”이라는 설계 개념을 위한 조경설계의

표 1. 생태미학과 전통미학의 비교

	전통 미학	생태미학
가치관	인간중심(homocentric), 물체(object) 중심, 국부적인	생명중심(biocentric), 관계(relation) 중심, 전체적인(holistic), 포괄하는
학문적 태도	기술적인, “미학”원칙, 주관적인	규범적인, 생태계 구성의 원칙, 객관적인
인간의 수용패턴	지각적, 즉각적, 정서적, 감성적, 시각중심의	인지적, 지식에 기반, 정제된, 정서적,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한(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움직임 등)
경관의 형태	집중된, 그림 같은, 멈춰진, 고정된, 극적인, 자연의 모습을 가진(naturalistic), 정돈된, 새것 같은, 정형적인 요소, 형태에 중점을 둔	은은한, 살아있는, 역동적인, 자연의(natural), 흐트러진, 더러운(그렇게 여겨지는), 지역성을 반영하는 요소,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중점을 둔
인간-경관	수동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바라보는, 경관을 통한 쾌(快), 단기간, 기분전환	활동적인, 참여하는, 경험적인, 관계하는, 경관의 이해를 통한 쾌(快), 지속적인, 복원의, 장소성, 통일성(unity)
설계(가)의 역할/태도	창조자, 마스터	중재자, 참여자

자료: Carlson, 1979; Gibson, 1979; Gobster, 1999, 2007; Kaplan and Kaplan, 1989; Koh, 1987; Sepänmaa, 1986; Spirm, 1988; Thayer, 1989; Zube et al., 1982. 필자 제작성

과제는 아주 많을 수 있다. 게다가, 자연의 특질들은 전체론적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제들을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논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사이토(Saito, 1998)는 공간적이건 시간적이건 간에 자연물 또는 자연현상을 그 자체의 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그래야 우리가 생태계의 지속 또는 생활 주기(life cycle)에서 자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만 또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 허프(Hough, 2004)는 우리의 많은 부분의 우리 생활 환경의 모습은 그 환경의 생명력을 지탱시키고 있는 프로세스를 지각하기 어렵게 감추고 있으며, 오히려 그런 프로세스를 지각할 수 있는 지각적인 능력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어떤 주제들을 쉽게 지각할 수 있게 만들 것이며, 어떻게 각각의 주제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조경설계가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경관의 생태적 기능

생태설계라는 분야가 진화해오면서 사람들이 자연의 구체적인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라고 강조되어 왔다(Hough, 2004; Orr, 2002; Lyle, 1994; 1999; Spim, 1988). 구체적으로 경관의 생태적 기능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이다. 하지만 자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생태계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징후”이며, 생태적 프로세스의 물질적 결과”임이 사실이라면(Mozingo, 1997),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이” 그것의 기능이고 효과인지를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그리고 재생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려 함에 있어서 설계자에게는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경관의 생태적 기능은 그 경관의 맥락에 따라서 매우 다양해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물, 물질의 흐름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능은 대부분의 경관에서 물이 이동하고 저장하는 과정, 생물지구화학적(biogeochemical) 변형, 경관의 주요 생산 및 분해 과정, 야생동물과 서식처 등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생태 시스템의 기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연의 프로세스는 많은 경우에 지각을 하기에 매우 미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의 형태로 드러나게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더 지각하기 쉽게 할 것인가는 설계가가 매우 어려운 질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주 느리고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경관의 생태적 특질들을 단순히 어떤 고정된 예술품으로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식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감상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이는 경관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인 설계적 중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3) 경관의 일시성(Temporality)

일시성은 다른 설계의 대상물과 비교하여 경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다. 경관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에너지와 물질의 역동적인 유입과 유출이 발생하는 장(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관은 생물체의 성장, 번식, 죽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밤과 낮, 월, 계절, 년 혹은 그 이상의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인 자연의 프로세스에 지배를 받는다. 이 프로세스에는 수세기 동안의 기후변화 또는 수천년 단위의 지질학적 변화 등도 포함될 수 있다(Motloch, 2001). 즉, 단순히 x, y, z좌표를 지닌 3차원의 일반 예술품을 감상하는 것에 비하여, 시간이라는 변수가 더해진 경관에 대한 미적인 체험을 한다는 것은 일반 예술품의 감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오늘날의 조경설계에서는 - 특히 도시 내의 -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혹시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프로세스를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전통적인 조경 설계에서는 이러한 자연의 흐름을 활력적이고 상상력을 돋우는 현상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무섭고 유쾌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Mozingo, 1997).

하지만, 이러한 생물학적 프로세스에서 야기되는 시간적 요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경관의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안다면, 설계 또한 우리의 감각을 환경의 실질적인 본질, 즉 경관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에 연결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스펀(Sprin, 1988)은 이런 생태 프로세스를 미학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움직임과 변화를 기리는 미학”이라고 표현했으며, 라일(Lyle, 1994)은 지속가능한 경관을 형성할 때에 경관의 형태는 에너지와 물질을 흐름을 생태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함과 동시에 그 흐름을 분명하게 내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생태 프로세스에 내재되어 있는 정밀함을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할 수 있다면, 이러한 형태들은 상징(symbol)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현재 많은 설계가들이 시간에 따른 경관 변화에 대한 개념을 설계에 반영했을 때 공간에 더 큰 흥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프랑스 앙드레 쾨트르앵 공원(Parc André Citroën) 내 질 클레망(Gilles Clément)이 설계한 움직임의 정원, 독일의 피터 라츠(Peter Latz)가 뉘스부르크 노드에 만든 코케리 한자(Kokeri Hansa), 네덜란드 West 8의 아드리안 게즈(Adriaan Geuz)가 설계한 폭풍 해일 장벽(Storm Surge Barrier Landscape Project at East Scheldt) 등이 있다.

이러한 경관의 미묘한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이해력은 설계의 도움으로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이 설계는 경관은 특정 이유에 의해서 형성되고 변하는 것이며, 그저 내버려둬서 야생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나사우어(Nassauer, 1995b; 1997)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사람들이 경관에서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신호(cue to care)”를 조형적 접근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즉, 복잡한 생태계에 규칙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프레임 추가함으로써 그 경관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설계의 언어를 발굴하여 실천하는 것 또한 생태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4) 역사성

과거의 이미지가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간에, 그 장소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미적 체험뿐만 아니라 그 장소의 생태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경관 혹은 장소는 배경 이야기나 역사적인 이벤트에 대한 내러티브(narrative)적인 가치를 항상 담고 있다. 특히 일상의 환경도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이 축적된 장소를 포함하고 있다(Potteiger and Purington, 1998). 따라서 “수세기 동안 만들어진 공간은 우리 정체성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해지기도 한다(Kolen, 2004).

더욱이 역사는 단지 문화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경관에 축적된 생태적 켜를 의미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관에는 그 경관만의 특정한 요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와서만(Wasserman, 2002)은 역사는 스토리텔링, 전설, 의례적인 일(ritual), 언어를 통해서 살아남게 되며, 여기서 언어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원래의 서식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생태적 지식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관의 생태는 그 역사와 마찬가지로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태학은 “생명체와 환경 간의 상호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과학적인 학문”이다(Webster Online English Dictionary). 그렇다면 경관의 역사는 그 경관에 서식하는 모든 이들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전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역사는 그 경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면서 사람들에게 장소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

는 장치일 것이다. 따라서 설계를 통해 경관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 또한 경관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도 생태설계가 다루어야 할 주요 과제임에 틀림없다.

5) 안전성

사람이 어느 경관에서 제대로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바람직한 공공 오픈 스페이스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야생의 숲 등을 포함한 특정 경관에서 구라파에서는 그 야생은 사람이 정착해서 길들여지기 전까지는 위험한 장소라고 믿었다(Cronon, 1996). 요즘에도 “야생처럼 보이는” 경관에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하게 보이거나 단정한 경관에 대해 선호도가 더 높다(Nassauer, 1995b).

특히 지저분해 보이고 어수선했어 보이는 생태적인 경관에서 자신의 몸을 잠재적인 위협이나 불편함⁶⁾으로 노출시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에서 머물면서 동시에 경관의 미학적 체험을 원할 것이다. 이것은 영국의 지리학자 애플턴(Appleton, 1975)이 그의 책 ‘경관의 체험(The Experience of Landscape)’에서 소개한 ‘조망과 은신 이론(Prospect and Refuge Theory)’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기회(조망, prospect)와 안전(은신, refuge)’에 대한 두 가지 욕망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람들은 흔히 전망이 좋은 곳과 은신하기 좋은 곳이 만나는 접점을 선호하며, 이런 지점들은 장애물이 없는 시각적 전망을 확보한 상태로 언제든지 숨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따라서 설계에 있어서도 어떠한 세팅이 이러한 이론을 적용되며,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6) 접근성

조경 설계에서 부지로의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부지로 어떻게 도달/ 진입할 것인가”와 “부지 내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Vroom, 2006). 접근성은 접근성이 부여된 공간의 요소와 특성에 따라서 분류되거나, 접근성을 부여받은 사람에 따라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것과 함께 “효율성, 연결성, 다양성, 방향성, 가변적인 이용성, 시각적 매력”등의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 한다(Lynch, 1960, 1981; Motloch, 2001). 게다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냐는 그 오픈 스페이스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경관의 미적 체험 차원에서 보면 접근성은 사람과 경관의 물리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하고, 제대로 된 경관 체험을 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전제조건일 것이다. 접근성은 설계가의 의도에 따라 사람들이 미적 체험을 시작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가

그림 2. 공원 부지 내 역사의 흔적과 은유(선유도공원)

자료: 필자 촬영, 2010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지 경관에 들어간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접근성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그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적절한 조망점과 동선체계 등도 포함한다. 접근과 동선의 패턴은 공간에 접근하거나, 머무르는 사람들의 안전성과 편안함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안전과 더불어 타당한 접근로, 좋은 조망, 경관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돌아 볼 수 있는 동선 등은 설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하겠다.

III. 결론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경관미학의 한 분야인 생태미학의 특성에 대하여 정의하고, 설계이론으로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고찰해 보았다. 미학과 생태는 둘 다 조경설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이론적 토대이다. 그리고 지난 세기 조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두 분야의 상호보완적인 긴장관계가 조경이라는 분야가 진보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미학과 생태적 접근의 설계는 각각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전을 받아왔다. 예를 들자면, 미학적인 접근을 위주로 한 설계에는 “내용은 공허하면서 단순히 그림이 예쁜”이라는, 생태적 접근에 치중한 설계는 “형태가 지루하고 창의적이지 못한”이라는 비난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대안적 이론적 접근으로 여겨지는 생태미학은 동시대의 환경적 맥락과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생태 경관’을 이해하고, 설계로 풀어내는 작업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미학과 비교하여 두드러진 생태미학의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경관체험에 있어서 인지적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생태미학에서는 단순히 경관의 표면적인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것보다, 그 경관의 작동 원리와 내용을 이해하면 표면적인 형태를 넘어서는 더 깊은 미적 체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이러한 경관에 대해 “읽”은 경관의 미적 선호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경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발생의 배경에서도 알 수 있지만, 생태미학은 근본적으로 환경주의(environmentalism)를 추구하며, 근대로부터 심화되고 있는 경관훼손 등 환경문제에 대한 미학적 해법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환경주의자들이 전통적인 미학에서 환경보호 및 보전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내지 못한 반면에, 생태미학은 사람들의 정확하지 않은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관의 인식과 이해로 인한 환경의 파괴 및 훼손을 줄이려는 노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생태미학에서는 설계의 교육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미학적 언어를 통해 생태미학은 경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들이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각

할 수 있게 하고, 더욱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적 성격을 바탕으로 생태미학에서는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자연”이라는 조경설계에 큰 개념을 제시하며, 이번 연구에서는 이 개념에 따른 구체적인 조경 설계의 과제에 대하여 논의했다. 우리가 지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설계의 주제는 경관의 생태적 기능, 경관의 일시성, 역사성을 강조했고, 근본적인 전제조건으로서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하여 논했다.

다른 많은 설계 주제에 대하여 논의되지 않은 것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경관의 생태적 질(質)과 미학의 관계를 이어주는 작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설계(가)의 창의성(creativity)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많은 연구에서 강조된 것과 같이 사람들이 경관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의 특성이 이러한 경관들이 얼마나 빨리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가에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Thayer, 1989), 새로운 생태 경관의 형성은 결국은 설계(가)의 경관의 형태에 대한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해석에 많이 의존할 것이다. 이에 따른 차후 연구로는 이 연구에서 정리한 조경설계의 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설계적/미학적 언어(design language)가 도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언어들은 어떻게 일반화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 주 1. 길핀(Gilpin, 1772)과 프라이스(Price, 1794)의 서술에 의하면 픽처리스크(the picturesque)는 가장 인간의 정주공간에 가까운 장식적인 경관에 대한 미학적 규정인 뷰티풀(the beautiful)과 인간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원시적인 자연의 모습을 나타내는 서블라임(the sublime)의 중간 단계를 의미한다. 경관에 대한 세 가지 분류가 전통적인 미학에서 경관의 스타일을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틀이라고 여겨진다.
- 주 2. 여기서 예술과 과학의 관계는 미학과 생태학의 관계를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관주의(subjectivism)와 객관주의(objectivism), 문화와 자연, 인간 중심주의(anthropocentrism)와 생물 중심주의(biocentrism)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 주 3. 전통적인 미학의 원칙이란, 예를 들어 풍경화를 그리는 화가는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실제의 모습과는 다르게) 미화시켜 그리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때 차용하는 미학의 원칙은 선, 형태, 색, 질감에 있어서 균형(balance), 비율(proportion), 대칭(symmetry), 순서(order), 명확함(vividness), 통일성(unity), 다양성(variety) 등이 있다. 다수의 조경설계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Gobster, 1999).
- 주 4. “부분의 합은 전체의 이상이다”이라는 개념.
- 주 5. 혹자는 경관(landscape)이 아닌 “경치(scenic)의 미학”(Gobster, 1999; Saito, 1998) 혹은 “형태(formal)의 미학”(Koh, 1987)라고 부르기도 한다.
- 주 6. 젓거나 더러워지는 것과 독성이 있는 식물이나 동물 혹은 불쾌한 냄새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인용문헌

1. 배정환(2006) 승고, 조경미학과 설계의 새로운 접점, in LAnD: 조경 미학 디자인, 파주: 도서출판 조경.
2. Appleton, J.(1975). The Experience of Landscape, London: John Wiley & Sons.
3. Berleant, A.(1997) Living in the Landscape: Toward an Aesthetics of

- Environment, Kansas University Press.
4. Bourassa, S. C.(1988) Toward a theory of landscape aesthetic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5: 241-252.
 5. Bourassa, S. C.(1990) A paradigm for landscape aesthetics, *Environment and Behavior* 22: 787-812.
 6. Callicott, J. B.(1994) "The land aesthetic", in *Ecological Prospects: Scientific, Religious, and Aesthetic Perspectives*, C. K. Chapple (ed.),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7. Carlson, A.(1979) Appreciation and the natural environment,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37(3): 267-275.
 8. Carlson, A.(2010) Environmental Aesthetics, <http://plato.stanford.edu/entries/environmental-aesthetic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tanford University.
 9. Clark, K.(1949) *Landscape into Art*, London: John Murray.
 10. Corner, J.(1999). Recovering landscape as a critical cultural practice, In J. Corner (Eds.) *Recovering Landscape: Essays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1. Cranz, G. and M. Boland(2004) Defining the sustainable park: A fifth model for urban parks, *Landscape Journal* 23: 2-04.
 12. Cronon, W.(1996) The trouble with wilderness: Or, getting back to the wrong nature, *Environmental History* 1(1, Jan).
 13. Eisenstein, W.(2001) Ecological Design, Urban Places, and the Culture of Sustainability, SPUR Newsletter, September.
 14. Flander, Susan L., and J. Baird Callicott, eds.(1991) *The River of the Mother of God, and Other Essays by Aldo Leopold*,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Gibson, 1979.
 15. Glacken, C. J.(1967) *Traces on the Rhodian Shore: Nature and Culture in Western Thought from Ancient Times to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6. Gobster, P. H.(1999) An ecological aesthetic for forest landscape management, *Landscape Journal* 18(1).
 17. Gobster, P. H.(2008) Yellowstone hotspot: Reflection on scenic beauty, ecology, and the aesthetic experience of landscape, *Landscape Journal* 27: 2-08.
 18. Gobster, P. H., J. I. Nassauer, T. C. Daniel and G. Fry(2007) The shared landscape: What does aesthetics have to do with ecology?, *Landscape Ecology* 22: 959-972.
 19. Hacking, I.(1999) *The Social Construction of Wha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 Hettinger, N.(2008). Objectivity in environmental aesthetics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A. Carlson & S. Lintott (Eds.), *Nature, Aesthetics, and Environmentalism: From Beauty to Du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1. Hough, M.(2004) *Cities & Natural Process: A Basis for Sustainability*, New York: Routledge.
 22. Jencks, C.(1995) *The Architecture of the Jumping Universe: A Polemic: How Complexity Science Is Changing Architecture and Culture*, London: Academy Edition.
 23. Kaplan, R. and S. Kaplan(1989) *The Experience of Nature: A Psychological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4. Koh, J.(1988) An ecological aesthetic, *Landscape Journal* 7: 177-191.
 25. Kolen, J.(2004) Belvedere - or the complicity of the designer in the historical process, In: H. Harsema H. (Eds.), *Landscape Architecture and Town Planning in the Netherlands*, Thoth, Publishing.
 26. Lyle, J. T.(1994) *Regenerative Des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27. Lyle, J. T.(1999) *Design for Human Ecosystems: Landscape, Land Use, & Natural Resources*, Washington, DC: Island Press.
 28. Lynch, K.(1960)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IT Press.
 29. Lynch, K.(1981) Access, In: *A Theory of Good City Form*, Cambridge: MIT Press.
 30. Motloch, J. L.(2001) *Introduction to Landscape Design* (second edition),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31. Mozingo, L. A.(1997) The aesthetics of ecological design: Seeing science as culture, *Landscape Journal* 16(1): 46-59.
 32. Nassauer, J. I.(1988) Landscape Care: Perceptions of Local People in Landscape Ec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Landscape and Land Use Planning*, 8: 27-41,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Washington D.C.
 33. Nassauer, J. I.(1995a) Culture and changing landscape structure, *Landscape Ecology* 10(4).
 34. Nassauer, J. I.(1995b) Messy ecosystems, orderly frames, *Landscape Journal* 14(2).
 35. Nassauer, J. I.(1997) Cultural sustainability: Aligning aesthetics and ecology, In J. I. Nassauer (Eds.) *Placing Nature: Culture and Landscape Ecology*, Washington D.C.: Island Press.
 36. Nohl, W.(2001) Sustainable landscape use and aesthetic perception-preliminary reflections on future landscape aesthetic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54: 223-237.
 37. Orr, D. W.(2002) *The Nature of Design: Ecology, Culture, and Human Inten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38. Parsons, R. and T. C. Daniel(2002) Good looking: In defense of scenic landscape aesthetic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60: 43-56.
 39. Potteiger, M. and J. Purington(1998) *Landscape Narratives*, New York: John Wiley & Sons.
 40. Proctor, J. D.(1998) The social construction of nature: Relativist accusations, pragmatist and critical realist respons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8(3): 352-276.
 41. Rolston, H.(1988) *Environmental Ethics: Duties to and Values in the Natural World*,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42. Saito, Y.(1998) The aesthetics of unscenic natur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6(2): 101-111.
 43. Sepänmaa, Y.(1986) *The Beauty of Environment: A General Model for Environmental Aesthetics*, Helsinki, Finland: Suomalainen Tiedekatemia
 44. Sporn, A. W.(1988) The poetics of city and nature: Towards a new aesthetic for urban design, *Landscape Journal* 7(2): 108-126.
 45. Thayer, Jr., R. L.(1989) The experience of sustainable landscapes, *Landscape Journal* 8(2): 101-110.
 46. Toulmin, S. E.(1992) *Cosmopolis: The Hidden Agenda of Modern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7. Van der Ryn, S. and S. Cowan(1996) *Ecological Design*, Washington, DC: Island Press.
 48. Vroom, M. J.(2006) *Lexicon of Garden and Landscape Architecture*, Basel, Switzerland: Birkhäuser.
 49. Wasserman, J.(2002) Memory embedded, *Landscape Journal* 21(1): 190-200.
 50. Wohlwill, J.(1983) The Concept of Nature: A Psychologist's View, In *Behavior and the Natural Environment*, I. Altman and J. Wohlwill, eds., New York: Plenum Press.
 51. Zube, E. H., J. L. Sell and J. G. Taylor(1982) Landscape perception: research, application and theory, *Landscape Planning* 9: 1-33.
 52. <http://www.oed.com/>
 53. <http://www.websters-online-dictionary.org/>

원 고 접 수 일: 2012년 2월 27일
 심 사 일: 2012년 4월 9일(1차)
 게 재 확 정 일: 2012년 4월 20일
 3 인 의 명 심 사 필